"미래자원 지하수 재조명… 다각도 지원을"

어제 제주물 세계포럼 개막 '지하수의 보전·활용' 주제

오경수 JPDC사장 기조강연 "삼다수, 글로벌 톱10 도전"

10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제주삼다수 취수원 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화산섬 지하수의 보전과 활용'을 주제로 수자원의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제주물 세계포럼이 10일 본격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비 물 안보, 미래전략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하수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칼레오 마누엘 하와이주 수자원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와이 주민들의 물보호:과거와 오늘'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수자원 계획은 수자원 보호 중심 정책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 정책과 보호 정책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공공자원으로서의 지속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자원 관리와 보호에 있어 건강하고 균형있는 토지와 수자원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소속 필립 페이파르트 전문관은 'JPDC-유네스코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이란 주제를 통해 "유네스코와 JPDC의 협력은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하여금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 취수원 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삼다수를 글로벌 톱10 브랜드 대열에 진입과 매출 5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한 무한도전을 시작했다"며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반으로 지하수의 가치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JPDC는 11일까지 제주물 세계포럼을 진행한다. 2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수자원 보전·관리 동향'이며, 에비앙의 패드릭 라사사뉴 박사와 스티브 진저리치 미국지질조사소 박사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열린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에 채용돼 1억 연봉 받는 퇴직공무원 1292명

제주 29명 연금 정지 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총 1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원 정도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적으로 2만1481명의 연금이 정지됐고 정지유형별로는 일부 정지 8709명, 반액 정지 1만1480명, 전액 정지 1292명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공직자는 2명이며, 일부 정지 18명, 반액 정지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버스준공영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분야) 협약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 제시된 도민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현장식생조사 일부만 진행 이정미 의원 주장 "재검토"

제주 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0일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의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 5종에 대해서만 현지조사가 이뤄졌고 또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총 77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조사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식물상 조사표에 기재된 목록을 언급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9종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68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해 거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 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어업인 의료지원 제주 소외 오영훈 의원 "일부편중 심각"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사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협에서 실시한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 지역별 지원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강원·제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사업에 투입된 금액 중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4년 7.2%, 2015년 5.7%, 2016년 1.1%, 2017년 1.5%, 2018년 8.3%로 매년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

오 의원은 "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은 취지가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이 심각해 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면서 "본래 취지를 십분 살려, 지역 균등화가 수반된 환경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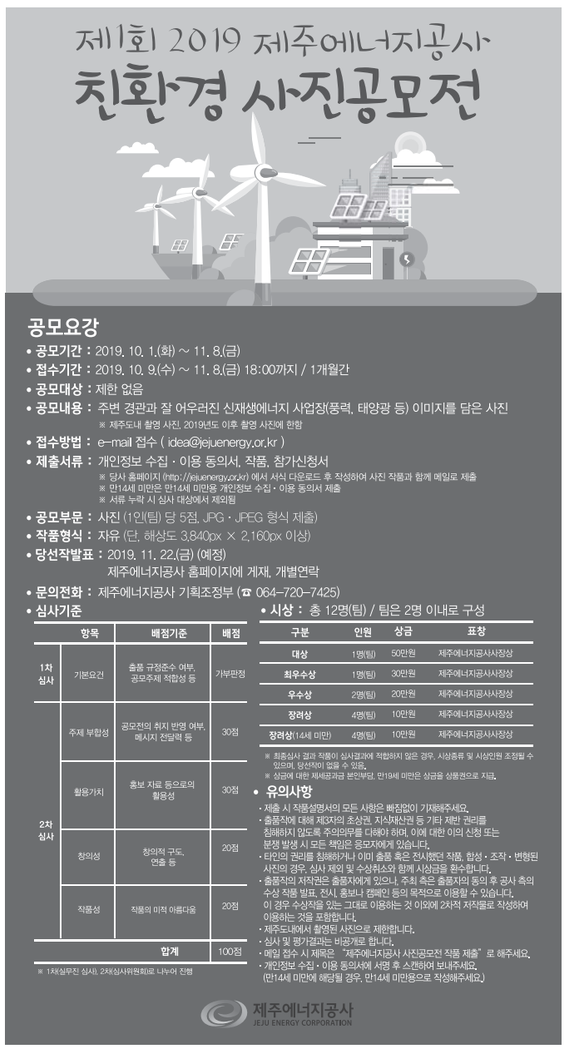
"수출기업 무역사기 기승… 최근 1년 피해액 739만 달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확인한 지난 1년간 우리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82건, 추정 피해금액은 739만9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17건, 중동 16건, 유럽 14건, 아프리카 6건의 순이었다. 특히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일본 지역의 피해도 3건이 보고됐다. 유형별로는 결제사기가 19건, 이메일 해킹 16건, 선적불량 13건 등이었으며, 서류위조와 금품갈취도 각각 9건을 나타냈다.

위 의원은 "무역사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피해 발생 이후에는 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2019년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마육요리 출품 및 시연회-

●일시 2019년 10월 14일(월) 10:00 ~ 15:00
●장소 농업인회관(제주시 선덕로23)

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축산업협동조합

초청강연
제주명품 축산물 마육의 특성과 음식문화
(한라대학교 최영진 교수)

문 의
●TEL 064) 711-4436
●FAX 064) 711-4435
●010-8661-0563

주최 · 주관 |
(사) 제주마생산자협회
회장 김 덕 문

제주특별자치도 블루베리연합회
발 기 인 총 회

제주 블루베리 회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블루베리 연합회가 발족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10월 14일 14:00~16:00

장 소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 참석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블루베리 연합회 활동에 관심있는 모든 블루베리 재배 농가

■ 안건 및 교육
-정관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블루베리 연합회 활동방향(강길홍 회장)
-한국블루베리 발전방향 (최종구 자조금조성위원장)
-시설재배에서 관수와 시비 (최구홍 블루베리 마이스터)

■ 문의 : 사무국장 정 일 010-3560-3093

제주특별자치도 블루베리 연합회
발기인 대표 강 길 홍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합기도대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제주특별자치도

Jeju 2019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합기도대회

일 시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개회식 오전11시
(종목별경기 오전 9시부터)
대회장 제주복합체육관 2층
(애향운동장 암벽등반 오름마당 옆)

■ 대회종목
내 몸 보호 호신술, 연무발차기, 멀리낙법, 호신형, 검술베기
번외경기 : 유치부경기, 동호인경기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합기도협회

■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협 찬
주원종합건설(주)

■ 대회담당
010-5040-4574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합기도대회
대회장 강 성 훈